위(僞)스퀼락스 항해기 — 한국어 전문 번역

번역에 관하여

기원전 4세기 익명 저자의 『항해기』. 전승된 표제에는 카리안다의 스퀼락스 이름이 붙어 있으나, 여기서는 통상적인 명칭인 '위스퀼락스'를 사용한다.

저작권이 소멸한 C. Müller 편, *Geographi Graeci Minores*, 제1권(파리, 1855), 15-96쪽의 그리스어 본문을 바탕으로 옮겼다. 절 번호는 이 판본의 1-114절을 따른다. 현대 교감판의 본문을 완전히 재현하는 비평 번역은 아니며, 옛 판본의 지명·수치·문맥상 난점도 가능한 한 드러냈다. 본문과 구별되는 설명은 대괄호 안에 넣었다. '[결락]'은 원문이 빠진 곳, '[본문 불명확]'은 전승된 문구의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 곳이다. 옛 판본에서 삽입 또는 보충으로 표시한 문장도 내용은 생략하지 않았다.

'리비아'는 고대의 아프리카 지리 개념이고, '에티오피아인'도 오늘날 에티오피아 국민을 뜻하지 않는다. '비그리스인'은 원문의 *barbaroi*를 옮긴 것이다. 스타디온은 고대 거리 단위이며,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현대 단위로 환산하지 않았다. '하루 항해'와 '하루 밤낮 항해'는 구별하였다. 식사 시각을 기준으로 한 원문의 항해 시간 표현은 '오전 동안 항해할 만한 거리'로 옮겼다. '폐쇄항'은 입구를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항구를 가리킨다.

원문: https://el.wikisource.org/wiki/Περίπλους_της_θαλάσσης_της_οικουμένης_Ευρώπης_και_Ασίας_και_Λιβύης

전승된 표제

카리안다의 스퀼락스가 쓴, 사람이 사는 세계 곧 유럽·아시아·리비아의 바다에 관한 항해기. 각 민족이 얼마나 많고 어떠한 민족인지, 그에 이어 지역·항구·강과 항해 거리,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일곱 섬 및 각 섬이 대륙에 대하여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다룬다.

유럽

1. 헤라클레스의 기둥

나는 유럽 쪽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 시작하여 [결락] 리비아 쪽 헤라클레스의 기둥까지, 그리고 키가 큰 에티오피아인들이 사는 곳까지 서술하겠다.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서로 하루 항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곳에는 가데이라라는 이름의 섬 두 개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에는 도시가 있는데,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 하루 항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유럽 쪽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부터 카르타고인들의 교역소가 많이 있으며, 진흙과 밀물과 넓은 바다가 있다.

2. 이베리아인

유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이베리아인, 곧 이베리아의 민족이며, 이베르강이 있다. [결락] 다음에는 엠포리온, 곧 엠포리온이라는 이름의 그리스 도시가 있다. 이들은 마살리아인들의 식민자들이다. 이베리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7일 밤낮이 걸린다.

3. 리귀에스인과 이베리아인

이베리아인들 다음에는 리귀에스인과 이베리아인이 섞여 살며, 로다노스강까지 이어진다. 엠포리온에서 로다노스강까지 리귀에스인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데는 낮 이틀과 하룻밤이 걸린다.

4. 리귀에스인

로다노스강 다음에는 안티온까지 리귀에스인이 산다. 이 지역에는 그리스 도시 마살리아와 항구 [결락]가 있다. 이 도시들은 마살리아의 식민시들이다. 로다노스강에서 안티온까지 항해하는 데는 4일 밤낮이 걸린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 안티온까지 이 모든 지역에는 좋은 항구가 많다.

5. 튀르레노이인

안티온에서 로마시까지 튀르레노이 민족이 산다.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4일 밤낮이 걸린다.

6. 퀴르노스

튀르레니아 맞은편에 퀴르노스섬이 있다. 튀르레니아에서 퀴르노스까지 항해하는 데는 하루 반이 걸린다. 이 항로 중간에는 아이탈리아라는 사람이 사는 섬이 있으며, 그 밖에도 무인도가 많이 있다.

7. 사르도

퀴르노스섬에서 사르도섬까지는 하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항해 거리이다. 그 사이에는 무인도 하나가 있다. 사르도에서 리비아까지는 하루 밤낮, 사르도에서 시칠리아까지는 낮 이틀과 하룻밤 항해 거리이다.

이제 퀴르노스로 방향을 돌렸던 지점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8. 라틴인

튀르레니아 다음에는 키르카이온까지 라틴인이 산다. 엘페노르의 무덤도 라틴인들의 땅에 있다. 라틴인들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 밤낮이 걸린다.

9. 올소이인

라틴인들 다음에는 올소이인이 산다. 올소이인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10. 캄파니아인

올소이인들 다음에는 캄파니아인이 산다. 캄파니아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퀴메와 네아폴리스이다. 그 맞은편에는 피테쿠사섬과 그리스 도시가 있다. 캄파니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11. 사우니타이인

캄파니아인들 다음에는 사우니타이인이 산다. 사우니타이인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12. 레우카니아인

사우니타이인들 다음에는 투리아까지 레우카니아인이 산다. 레우카니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6일 밤낮이 걸린다. 레우카니아는 반도를 이룬다. 이곳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포세이도니아, 엘레아, 투리오이의 식민시 라오스, 판도시아, 플라테에이스, 테리나, 힙포니온, 메스마, 그리고 레기온 곶과 도시이다.

13. 시칠리아

레기온 맞은편에는 시칠리아섬이 있다. 유럽의 레기온에서 시칠리아의 펠로리아스까지는 12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시칠리아에는 다음 비그리스 민족들이 산다. 엘뤼모이인, 시카노이인, 시켈로이인, 페니키아인, 트로이인이다. 이들이 비그리스인이며, 그리스인도 산다.

시칠리아의 곶은 펠로리아스이다. 펠로리아스에서부터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나온다. 메세네와 항구, 타우로메니온, 낙소스, 카타네, 레온티노이이다. 테리아스강을 따라 레온티노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리는 20스타디온이다. 이어 쉬마이토스강, 메가리스시와 크시포네이오스항이 있다.

메가리스 다음 도시는 쉬라쿠사이이며, 그곳에는 항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성벽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밖에 있다. 그다음에는 헬로론시와 파퀴노스곶이 있다. 파퀴노스에서부터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카마리나, 겔라, 아크라가스, 셀리누스, 그리고 릴뤼바이온곶이다.

릴뤼바이온 다음에는 그리스 도시 히메라가 있고, 히메라시 다음에는 리파라섬이 있으며, 그리스 도시 뮐라이와 항구가 있다. 뮐라이에서 리파라섬까지는 반나절 항해 거리이다.

[시칠리아는 삼각형이며, 각 변의 길이는 대략 1,500스타디온이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레기온에서부터 다음 도시들이 있다. 로크로이, 카울로니아, 크로톤, 라키니온에 있는 헤라의 신역, 그리고 오뒷세우스가 칼륍소와 함께 살았던 칼륍소섬, 크라티스강과 쉬바리스강, 투리아시이다. 이들이 레우카니아에 사는 그리스인들이다.

14. 이아퓌기아

레우카니아 다음에는 아드리아만에 있는 오리온산까지 이아퓌게스 민족이 산다. 이아퓌기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6일 밤낮이 걸린다. 이아퓌기아에도 그리스인이 살며, 다음 도시들이 있다. 헤라클레이온, 메타폰티온, 타라스와 항구, 그리고 아드리아만 또는 이오니아만 입구의 휘드루스이다.

15. 사우니타이인

이아퓌게스인들 다음, 오리온에서부터 사우니타이 민족이 산다. [이 민족 안에는 다음 언어, 곧 말씨가 있다. 라테르니오이, 오피코이, 크라모네스, 보레온티노이, 페우케티에이스이다.] 이들은 튀르세니아해에서 아드리아해까지 걸쳐 산다. 사우니티스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낮 이틀과 하룻밤이 걸린다.

16. 옴브리코이인

사우니타이인들 다음에는 옴브리코이 민족이 살며, 그곳에 앙콘시가 있다. 이 민족은 디오메데스에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를 숭배하며, 그의 신역도 있다. 옴브리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낮 이틀과 하룻밤이 걸린다.

17. 튀르레노이인

옴브리코이인들 다음에는 튀르레노이인이 산다. 이들도 바깥쪽 튀르레니아해에서 아드리아해까지 걸쳐 산다. 그곳에는 그리스 도시 [스피나]와 강이 있으며, 강을 따라 도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리는 약 20스타디온이다. 피사시에서 이 도시까지는 사흘 길이다.

18. 켈트인

튀르레노이인들 다음에는 원정에서 뒤에 남겨진 켈트 민족이 좁은 지대를 따라 아드리아해까지 [뻗어] 산다. 이곳이 아드리아만의 가장 안쪽이다.

19. 에네토이인

켈트인들 다음에는 에네토이 민족이 살며, 그 땅에 에리다노스강이 있다. 이곳을 따라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20. 이스트로이인

에네토이인들 다음에는 이스트로이 민족이 살며, 이스트로스강이 있다. 이 강은 폰토스에도 흘러든다. [본문 불명확: 이집트에 관한 문구가 뒤따른다.] 이스트리아인들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 밤낮이 걸린다.

21. 리뷔르노이인

이스트로이인들 다음에는 리뷔르노이 민족이 산다. 이 민족의 해안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리아스, 이다사, 앗티에니테스, 뒤위르타, 알룹소이, 올소이, 페데타이, 헤미오노이이다.

이들은 여성의 지배를 받는다. 여자들은 자유민 남자들의 아내이면서도 자신들의 노예 및 이웃 지역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 지역 앞바다에는 내가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다음 섬들이 있다. 그 밖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섬들이 많이 있다. 이스트리스 섬은 길이 310스타디온, 너비 120스타디온이다. 또 엘렉트리데스와 멘토리데스가 있다. 이 섬들은 크다.

22. 일뤼리아인

리뷔르노이인들 다음에는 일뤼리아 민족이 산다. 일뤼리아인들은 알키노오스의 섬 케르퀴라 맞은편에 있는 카오니아까지 해안을 따라 산다. 이곳에는 헤라클레이아라는 그리스 도시와 항구가 있다.

또 '연꽃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다음 비그리스 민족들이 있다. 히에라스탐나이, 불리노이[또는 휠리노이]이다. 불리노이인들과 경계를 맞댄 사람들은 휠로이인이다. 이들은 헤라클레스의 아들 휠로스가 자기들을 이곳에 정착시켰다고 말하지만, 비그리스인이다. 이들은 펠로폰네소스보다 조금 작은 반도에 산다.

그 반도에서부터 [해안의 뻗은 모양에 관한 본문 불명확] 불리노이인들이 그곳 해안을 따라 산다. 불리노이인은 일뤼리아 민족이다. 그들의 해안을 따라 네스토스강까지 항해하는 데는 긴 하루가 걸린다.

23. 네스토이인

네스토스에서부터는 항로를 따라 만이 이어진다. 이 만 전체를 마니오스라고 부른다.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이 만에는 프로테라스, 크라테이아이, 올륀타라는 섬들이 있다. 이 섬들은 서로 2스타디온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며, 파로스와 이사 맞은편에 있다. 이곳에는 새로 세워진 그리스인의 섬 파로스와 이사섬이 있고, 이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이다.

나론강에 이르기 전에 넓은 땅이 바다 쪽으로 크게 뻗어 있다. 해안 가까이에는 멜리테라는 섬이 있고, 그 가까이에 '검은 케르퀴라'라는 다른 섬이 있다. 이 섬은 한쪽 곶이 해안에서 바다 멀리 돌출하고, 다른 곶은 나론강 쪽으로 뻗어 있다. 멜리테에서는 20스타디온, 해안에서는 8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24. 마니오이인

네스토이인들 다음에는 나론강이 있다. 나론강 입구는 좁지 않다. 삼단노선도 이 강에 들어갈 수 있으며, 배들은 바다에서 80스타디온 떨어진 상류의 교역소까지 올라간다. 이곳 사람들은 일뤼리아의 마니오이 민족이다.

교역소보다 안쪽에는 큰 호수가 있으며, 호수는 일뤼리아 민족인 아우타리아타이인의 땅까지 뻗어 있다. 호수 안에는 120스타디온 크기의 섬이 있고, 이 섬은 농사짓기에 매우 좋다. 나론강은 이 호수에서 흘러나온다.

나론에서 아리온강까지는 하루 항해 거리이며, 아리온강에서 [리준강까지]는 반나절 항해 거리이다. 이곳에는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의 돌들이 있으며, 리준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역이 있다. 리준강에서 부토에까지의 항해는 [결락], 그리고 교역소가 있다.

25. 엥켈레이스인

엥켈레이스인은 리준에 인접해 사는 일뤼리아 민족이다. 부토에에서 그리스 도시 에피담노스까지는 하루 밤낮 항해 거리이며, 육로로는 사흘 길이다.

26. 타울란티오이인

에피담노스가 있는 곳은 일뤼리아의 타울란티오이 민족의 땅이다. 팔람노스라는 강이 도시 옆을 흐른다. 에피담노스에서 그리스 도시 아폴로니아까지는 이틀 길이다. 아폴로니아는 바다에서 50스타디온 떨어져 있으며, 아이아스강이 도시 옆을 흐른다. 아폴로니아에서 아만티아까지는 320스타디온이다.

[아이아스강은 핀도스산에서 나와 아폴로니아 옆을 흐른다.] [아만티아에서] 더 안쪽, 이오니아만 쪽에 오리코스가 있다. 오리키아의 해안은 80스타디온, 아만티아의 해안은 60스타디온에 걸쳐 있다.

이들 모두의 내륙 쪽 경계에는 아틴타네스인이 살며, 오리키아와 카리아 위쪽 [결락]에서 도도니아까지 이어진다. [케스트리스 지역에는 에뤼테이아라는 평야가 있다고 한다. 게뤼오네스가 이곳에 와서 소를 쳤다고 한다.]

이 부근 대륙에는 케라우니아산맥이 있으며, 그 앞바다에는 사손이라는 작은 섬이 있다. 이곳에서 오리코스시까지는 하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안 항해 거리이다.

27. 오리코이인

[오리코이인들은 아만티아의 땅에 산다.] 불리노이인들에서 이곳 [아만티에이스인들]까지가 일뤼리아인이다.

이오니아만의 입구는 케라우니아산맥에서 이아퓌기아곶까지이다. 케라우니아에서 이아퓌기아의 휘드로에이스시까지 가로지르는 거리는 약 500스타디온이며, 이것이 만의 입구이다. 그 안쪽이 이오니아만이다. 아드리아해에는 항구가 많이 있다.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는 같은 바다이다.

28. 카오네스인

일뤼리아인들 다음에는 카오네스인이 산다. 카오니아에는 좋은 항구가 많다. 카오네스인들은 촌락에 나뉘어 산다. 카오니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29. 코르퀴라

카오니아 맞은편에는 코르퀴라섬이 있으며, 그 안에는 그리스 도시가 있다. 도시에는 항구가 세 개 있으며, 그중 하나는 폐쇄항이다. 코르퀴라는 카오니아보다 테스프로티아와 마주 보는 부분이 더 크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30. 테스프로토이인

카오니아 다음에는 테스프로토이 민족이 산다. 이들 역시 촌락에 나뉘어 살며, 이 지역에도 좋은 항구가 많다. 이곳에는 엘라이아라는 항구가 있다. 아케론강이 이 항구로 흘러든다. 아케루시아 호수가 있으며, 아케론강은 그 호수에서 흘러나온다. 테스프로티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31. 카소포이인

테스프로티아 다음에는 카소피아 민족이 산다. 이들 역시 촌락에 나뉘어 산다. 이들의 땅은 아나크토리코스만까지 해안을 따라 이어진다. 카소포이인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아나크토리코스만은 입구에서 가장 안쪽까지가 120스타디온에 조금 못 미친다. 입구의 너비는 4스타디온이다.

32. 몰롯티아

카소피아 다음에는 몰롯토이 민족이 산다. 이들은 촌락에 나뉘어 산다. 이곳에서는 바다에 닿은 부분이 조금뿐이며, 내륙으로는 넓게 뻗어 있다. 몰롯티아의 해안 길이는 40스타디온이다.

33. 암브라키아

몰롯티아 다음에는 그리스 도시 암브라키아가 있다. 이 도시는 바다에서 8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바닷가에는 요새와 폐쇄항도 있다.

이곳에서부터 페네이오스강과 그 강가에 있는 마그네시아의 도시 호몰리온까지 그리스 땅이 연속해서 이어진다. 암브라키아의 해안 길이는 120스타디온이다.

34. 아카르나니아

암브라키아 다음에는 아카르나니아 민족이 산다. 그곳의 첫 도시는 암필로키아의 아르고스이며, 아나크토리온과 항구가 있다. 아나크토리코스만 바깥에는 악테, 레우카스시와 항구가 있다. 이 도시에서 바다 멀리 돌출한 곶인 레우카타스까지는 [결락] 떨어져 있다.

이 도시는 예전에 그 주민들을 에필레우카디오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아카르나니아인들은 내분을 일으킨 뒤 코린토스에서 이주민 1,000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스스로 차지하였다.

지협에 도랑을 팠으므로 이곳은 이제 섬이다. [지협에 파놓은 해협이 있다.] 그다음에는 파라시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타케섬과 도시와 항구가 있다. 그다음에는 케팔레니아섬이 있다.

이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그다음에는 알뤼지아시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카르노스섬이 있다. 이어 아스타코스시와 항구, 아켈로오스강, 오이니아다이시가 있다. 아켈로오스강을 따라 이 도시[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아카르나니아의 내륙에는 그 밖에도 도시가 있다.

아카르나니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이틀 [결락]이 걸린다. 아카르나니아 전체에는 좋은 항구가 많다. 이 부근 앞바다에는 섬이 많이 있는데, 아켈로오스강이 흙을 쌓아 올려 그것들을 대륙에 연결하고 있다. 이 섬들을 에키나데스라고 부르며, 무인도이다.

35. 아이톨리아

아카르나니아 다음에는 아이톨리아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칼뤼돈, 할리카르나, 몰뤼크레이아라는 도시들이 있고, 델포이만이 있다. 만 입구의 너비는 10스타디온이며, 그 위에는 신역이 있다. 나우팍토스시가 있고, 그 뒤쪽 내륙에도 아이톨리아인들의 다른 도시가 많이 있다. 아이톨리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아이톨리아는 내륙에서 로크리스 전체를 따라 아이니아네스인의 땅까지 뻗어 있다.

36. 로크로이인

아이톨리아인들 다음에는 로크로이 민족이 산다. 그 가운데 오졸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에우안티스와 암피사라는 도시들이 있다. 이들에게도 내륙의 도시들이 있다. 로크로이인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37. 포키스인

로크로이인들 다음에는 키라 평야 일대에 포키스 민족이 산다. 아폴론의 신역과 델포이시, 안티퀴라시가 있다. 안티퀴라에서는 헬레보로스를 이용한 치료를 가장 잘한다. 포키스인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38. 보이오티아인

포키스인들 다음에는 보이오티아 민족이 산다. 다음 도시들이 있다. 코르시아이, 시파이와 항구, 에우트레토스, 그리고 보이오티아인들의 요새이다. 보이오티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는다.

39. 메가라인

보이오티아인들 다음에는 메가라 민족이 산다. 다음 도시들이 있다. 아이고스테나, 페가이, 게라네이아 요새, 아리스이다. 메가라인들의 해안 길이는 100스타디온이다.

40. 코린토스

메가라인들 다음에는 코린토스시와 신역, 레카이온, 지협이 있다. 여기서부터 펠로폰네소스가 시작된다. 이 바다에서 지협을 지나 우리 쪽 바다로 가는 길은 40스타디온이다. 이 일대는 모두 만으로 굽어져 있다. 코린토스인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41. 시퀴온

코린토스 다음에는 시퀴온시가 있다. 그 해안 길이는 120스타디온이다.

42. 아카이아인

시퀴온 다음에는 아카이아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펠레네, 아이게이라, 아이가이, 아이기온, 뤼페스, 그리고 리온 바깥쪽의 파트라이와 뒤메이다. 아카이아의 해안 길이는 700스타디온이다.

43. 엘리스

아카이아인들 다음에는 엘리스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퀼레네와 항구, [올륌피아], 알페이오스강이 있다. 내륙에는 여러 취락이 합쳐진 또 다른 엘리스도 있다. 이 지역 맞은편에는 자퀸토스섬이 있고, 그 안에는 도시와 항구가 있다. 엘리스인의 해안은 레프레온인들의 [경계]까지 700스타디온이다.

44. 아르카디아

엘리스 다음에는 아르카디아 민족이 산다. 아르카디아는 내륙에서 레프레온 부근의 바다까지 이른다. 내륙에는 다음 큰 도시들이 있다. 테게아, 만티네이아, 헤라이아, 오르코메노스, 스튐팔로스이다. 그 밖에도 도시가 있다. 레프레온인들의 해안 길이는 100스타디온이다.

45. 메세네

아르카디아 다음에는 메세네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첫째는 메세네와 항구이다.] 퀴파리소스는 바다에서 7스타디온 떨어져 있고, 내륙의 이토메는 바다에서 8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메세니아의 해안 길이는 300스타디온이다.

46. 라케다이몬

[결락] 라케다이몬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아시네, 모토네, 아킬레이오스항, 그리고 그 뒤편 반대쪽의 프사마투스항이다. 두 항구 사이에는 타이나로스가 있으며, 바다로 돌출한 곳에 포세이돈의 신역이 있다.

또 라스시와 항구, 조선소와 요새가 있는 귀테이온, 에우로타스강, 보이아시, 말레아곶이 있다. 그 맞은편에는 퀴테라섬과 도시와 항구가 있다. 또 그 맞은편에는 크레타섬이 있다.

앞에서 말한 말레아곶 다음에는 시데시와 항구, 에피다우로스시와 항구, 프라시아시와 항구, 메타나시와 항구가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에게는 그 밖에도 도시가 많이 있다. 내륙에는 스파르타와 다른 도시들이 많이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사흘이 걸린다.

47. 크레타

라케다이몬 맞은편에는 크레타섬이 있다. 유럽에서 크레타와 가장 가까운 곳이 라케다이몬이다. 라케다이몬에서 팔라사르나시가 있는 크레타의 곶까지 바다를 건너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팔라사르나 다음에는 크리우 메토폰['숫양의 이마']곶이 있다. 남쪽으로 리비아를 향하여, 퀴레네인들의 케르소네소스에 있는 할리아데스까지 항해하는 데는 하루 밤낮이 걸린다.

크레타의 길이는 2,500스타디온이며, 너비는 좁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크레타에는 그리스인이 산다. 일부는 라케다이몬인들의 식민자이고, 일부는 아르고스인들의 식민자이며, 일부는 아테네인들의 식민자이다. 다른 이들은 그리스의 그 밖의 여러 곳에서 왔다. 그들 가운데는 토착민도 있다. 크레타에는 도시가 많이 있다.

[크레타의 배치.] [결락] 서쪽 끝의 곶에 있는 첫 도시는 앞서 말한 팔라사르나이며, 폐쇄항이 있다. 폴뤼레니아의 땅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어진다. 북쪽에는 페르가미아 지역에 아르테미스의 딕튄나이온 신역이 있고, 남쪽에는 휘르타키나가 있다. 북쪽에는 퀴도니아와 폐쇄항이 있으며, 내륙에는 엘뤼로스시가 있다. 남쪽에는 크리우 메토폰 부근의 리사시와 항구가 있다.

북쪽에는 압테라이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는 람파이아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양쪽 해안까지 이어지며, 그 안에는 메사피오스강이 있다. [결락] 오스미다 다음 북쪽에는 엘레우테르나이가 있고, 남쪽에는 쉬브리타가 있다. [결락] 그리고 항구가 있다. 남쪽에는 파이스토스가, 북쪽에는 오악소스와 크노소스가 있다. 남쪽에는 고르튀나와 라우코스가 있다. 내륙에는 뤽토스가 있으며, 그 땅은 양쪽 해안까지 이어진다.

북쪽에는 카디스톤산과 그곳의 항구 올루스 및 [결락]가 있다. 프라이소스의 땅은 양쪽 해안까지 이어진다. 그라노스는 동쪽을 향한 크레타의 곶이다. 크레타에는 다른 도시들도 있으며, 백 개의 도시를 가진 섬이라고 한다.

48. 퀴클라데스 제도

라케다이몬 지역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사는 퀴클라데스의 섬들은 다음과 같다. 멜로스와 항구, 그 맞은편의 키몰로스, 그 맞은편의 올리아로스, 그 맞은편의 시키노스이다. 시키노스에는 도시도 있다. 그 맞은편에는 테라, 그 맞은편에는 아나페, 그 맞은편에는 아스튀팔라이아가 있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49. 아르고스

라케다이몬 다음에는 아르고스시가 있고, 그 영토 안에 나우플리아와 항구가 있다. 내륙에는 클레오나이, 뮈케나이, 티륀스가 있다. 아르고스의 해안을 돌아 항해하는 거리는 150스타디온이다. 이곳은 아르골리코스라고 불리는 만이기 때문이다.

50. 에피다우로스

아르고스 다음에는 에피다우로스의 땅이 있다. 이 땅은 이 만에 30스타디온에 걸쳐 닿아 있다. 에피다우로스의 땅 다음에는 할리아와 항구가 있다. 이곳은 아르골리코스만의 입구에 있다. 그 해안을 도는 거리는 100스타디온이다.

51. 헤르미온

그다음에는 헤르미온시와 항구가 있다. 그 해안을 도는 거리는 80스타디온이다. 헤르미온 다음에는 지협을 향한 만의 곶인 스퀼라이온이 있다. 스퀼라이온은 트로이젠의 영토이다. 그 맞은편에는 아테네 영토의 수니온곶이 있다. 그 부근에는 벨비나섬과 도시가 있다.

이 만의 이 입구에서 안쪽 지협까지는 740스타디온이다. 이 만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곧게 뻗어 있다.

52. 트로이제니아

헤르미온 다음에는 트로이제니아시와 항구가 있다. 그 해안 길이는 30스타디온이다. 그다음에는 칼라우리아섬과 도시와 항구가 있다. 그 해안을 따라가는 거리는 300스타디온이다.

53. 아이기나

그 맞은편에는 아이기나섬과 도시, 두 항구가 있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54. 에피다우로스

트로이제니아 다음에는 에피다우로스시와 항구가 있다. 에피다우로스의 해안 길이는 [1]30스타디온이다.

55. 코린티아

에피다우로스 다음에는 동쪽을 향한 코린토스의 땅과 켕크레아이 요새, 지협이 있으며, 그곳에는 포세이돈의 신역이 있다. 여기서 펠로폰네소스가 끝난다.

코린토스인들은 지협 바깥쪽에도 땅을 갖고 있다. 시두스라는 요새와 크렘뮈온이라는 또 다른 요새가 있다. 코린토스의 해안은 메가라인들과의 경계까지 300스타디온이다.

56. 메가라

코린토스의 땅 다음에는 메가라시와 항구, 니사이아 요새가 있다. 메가라인들의 해안은 이아피스까지 140스타디온이다. 이아피스가 아테네 영토와의 경계이다.

57. 앗티카

메가라인들 다음에는 아테네인들의 도시들이 있다. 앗티카의 첫 도시는 엘레우시스이며, 데메테르의 신역과 요새가 있다. 그 맞은편에는 살라미스섬과 도시와 항구가 있다. 그다음에는 페이라이에우스, 장성, 아테네가 있다. 페이라이에우스에는 항구가 세 개 있다.

아나플뤼스토스 요새와 항구, 수니온곶과 요새 및 포세이돈의 신역, 토리코스 요새와 두 항구, 람누스 요새가 있다. 앗티카에는 그 밖에도 항구가 많이 있다.

아테네인들의 해안을 도는 거리는 1,140스타디온이다. 이아피스 지역에서 수니온까지 490스타디온, 수니온에서 보이오티아인들과의 경계까지 650스타디온이다.

58. 퀴클라데스의 섬들

앗티카 맞은편에는 퀴클라데스라고 불리는 섬들이 있으며, 섬들과 그 안의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케오스에는 도시가 네 개 있다. [포이에에사시]와 항구, 코레시아, 이울리스, 카르타이아이다. 이어 헬레네, 퀴트노스섬과 도시, 세리포스섬과 도시와 항구, 시프노스, 파로스가 있다. 파로스에는 항구가 두 개 있고 그중 하나는 폐쇄항이다. 이어 낙소스, 델로스, 레네, 쉬로스, 뮈코노스가 있다. 뮈코노스에는 도시가 두 개 있다. 이어 테노스와 항구, 안드로스와 항구가 있다. 이것들이 퀴클라데스의 섬들이다.

그 아래 남쪽에는 다음과 같은 다른 섬들이 있다. 이오스와 항구가 있으며, 호메로스가 이 섬에 묻혀 있다. 아모르고스에는 도시가 세 개 있고 항구가 있다. 이카로스에는 도시가 두 개 있다.

안드로스 다음에는 에우보이아섬이 있다. 이 섬에는 도시가 네 개 있다. 카뤼스토스, 에레트리아와 항구, 칼키스와 항구, 헤스티아이아와 항구이다. 에우보이아의 케나이온에 있는 제우스의 신역에서 게라이스토스에 있는 포세이돈의 신역까지는 1,350스타디온이다. 에우보이아의 너비는 좁다.

아이가이온해에는 다음 섬들이 있다. 에레트리아 맞은편의 스퀴로스와 도시, 도시가 두 개 있는 이코스, 도시가 세 개 있고 항구가 있는 페파레토스, 도시가 두 개 있고 항구가 있는 스키아토스이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59. 보이오티아인

아테네 다음에는 보이오티아 민족이 산다. 이들의 땅도 이쪽 바다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먼저 델리온 신역, 아울리스 신역, 에우리포스, 요새, 안테돈 요새가 있다. 내륙에는 테바이, 테스피아이, 오르코메노스가 있다. 다른 도시들도 있다. 보이오티아의 해안은 델리온에서 로크로이인들과의 경계까지 250스타디온이다.

60. 로크로이인

보이오티아인들 다음에는 로크로이 민족이 산다. 에우보이아 맞은편에는 그들의 다음 도시들이 있다. 라륌나, 퀴노스, 오푸스, 알로페이다. 로크로이인들에게는 그 밖에도 도시가 많이 있다. 그들의 해안 길이는 200스타디온이다.

61. 포키스인

로크로이인들 다음에는 포키스인이 산다. 이들의 땅도 이쪽 바다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트로니온, 크네미스, 엘라테이아, 파노페우스이다. 내륙에는 그 밖에도 도시가 있다. 포키스인의 해안 길이는 200스타디온이다.

62. 멜리에이스인과 말리에이스인

포키스인들 다음에는 멜리에이스인과 멜리에우스만이 있다. [이 만에는 '리모도리스인'이라고 불리는 다음 사람들이 있다. 에린네오스, 보이온, 퀴티니온이다.] 이곳에는 테르모퓔라이, 트라키스, 오이테, 헤라클레이아, 스페르케이오스강이 있다.

멜리에이스인들 다음에는 [말리에이스] 민족이 산다. 말리에이스인의 첫 도시는 라미아이고, 마지막 도시는 에키노스이다. 말리에이스인들에게는 만이 닿는 곳까지 다른 도시들도 있다. 말리에이스인의 땅 위쪽 내륙에는 아이니아네스인이 살며, 스페르케이오스강이 그 땅을 지나 흐른다.

63. 아카이아인

말리아만 바깥에는 아카이아의 프티오타이 민족이 산다. 또 파가사이만에 들어갈 때 왼쪽에도 이들이 살며, 만의 절반쯤까지 이어진다. 아카이아인들의 도시는 다음과 같다. 안트로네스, 라리사, 멜리타이아, 데메트리온, 테바이이다. 아카이아인들에게는 내륙에도 다른 도시들이 있다.

64. 텟살리아

아카이아인들 다음에는 텟살리아가 내륙에서 좁게 뻗어 파가사이만의 바다와 30스타디온에 걸쳐 접한다. 텟살리아의 해안 도시들은 암파나이온과 파가사이이다. 내륙에는 페라이, 라리사, 파르살로스, 키에론, 펠린나이온, 스코투사, 크란논이 있다. 텟살리아인들에게는 내륙의 다른 도시들도 있다.

텟살리아는 내륙에서 아이니아네스인·돌로페스인·말리에이스인·아카이아인·마그네테스인의 땅 뒤쪽을 따라 템페까지 뻗어 있다.

파가사이만의 입구에서 가장 안쪽 파가사이까지는 오전 동안 항해할 만한 거리이다. 입구의 너비는 5스타디온이다. 파가사이만에는 키퀴네토스섬과 도시가 있다.

65. 마그네테스인

해안에는 마그네테스 민족이 살며, 다음 도시들이 있다. 이올코스, 메토네, 코라카이, 스팔라우트라, 올리존, 이사이항이다. 파가사이만 바깥에는 멜리보이아, 리주스, 에우뤼메나이, 뮈라이가 있다. 그 위쪽 내륙에는 그리스인인 페라이보이 민족이 산다.

암브라키아에서 이곳까지 그리스 땅이 연속해서 이어진다. 해안 일대도 대체로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땅이다.

66. 마케도니아

페네이오스강에서부터 마케도네스 민족이 살며, 테르마이오스만이 있다.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는 헤라클레이온이다. 이어 디온, 그리스 도시 퓌드나, 그리스 도시 메토네와 할리아크몬강, 알로로스시와 뤼디아스강, 펠라시가 있다. 펠라에는 왕궁이 있으며, 뤼디아스강을 거슬러 올라가 도시에 이를 수 있다.

이어 악시오스강, 에케도로스강, 테르메시, 그리스 도시 아이네이아, 그리고 바다로 길게 뻗은 팔레네곶이 있다. 팔레네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지협의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포티다이아, 멘데, 아퓌티스, 트람베이스, 스키오네, 그리고 팔레네의 신성한 곶 카나스트라이온이다.

지협 바깥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그리스 도시 올륀토스, 메퀴베르나, 세르뮐리아와 세르뮐리코스만, 그리스 도시 토로네와 항구, 그리스 도시 디온, 팃소스, 클레오나이, 아토스산, 그리스 도시 아크로토오이, 카라드루스, 올로퓍소스, 아칸토스, 알랍타, 아레투사, 볼베호, 그리스 도시 아폴로니아이다. 마케도니아의 내륙에는 그 밖에도 도시가 많이 있다.

이 지역에는 만이 많이 있으며, 만들을 따라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이틀이 걸린다. 마케도니아 다음에는 스트뤼몬강이 있다. 이 강이 마케도니아와 트라케를 구분한다.

67. 트라케

트라케는 스트뤼몬강에서 에욱세이노스 폰토스의 이스트로스강까지 뻗어 있다. 트라케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암피폴리스, 파그레스, 갈렙소스, 오이쉬메와 그 밖의 타소스인들의 교역소들이다. 그 맞은편에는 타소스섬과 도시, 두 항구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폐쇄항이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네아폴리스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아테네인 칼리스트라토스가 세운 그리스 도시 다톤이 있다. 이어 네스토스강, 압데라시, 쿠데토스강, 마로네이아가 있다. 그 맞은편에는 사모트라케섬과 항구가 있다.

그 섬 맞은편 대륙에는 드뤼스와 조네라는 교역소들, 헤브로스강과 그 강가의 도우리스코스 요새, 아이노스시와 항구, 트라케에 있는 아이노스인들의 요새들, 멜라스만, 멜라스강, 데리스 교역소, 카르디아인들의 교역소 코브뤼스, 그리고 퀴파시스라는 또 다른 교역소가 있다. 멜라스만 맞은편에는 임브로스섬과 도시, 렘노스섬과 항구가 있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멜라스만 다음에는 트라케 케르소네소스[반도]가 있고, 그 안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카르디아, 이테, 파이온, 알로페콘네소스, 아라플로스, 엘라이우스, 마뒤토스, 그리고 프로폰티스 입구에 있는 세스토스이다. [이 입구의 너비는] 6스타디온이다.

안쪽에는 아이고스 포타모이, 크레사, 크리토테, 팍튀에가 있다. 여기까지가 트라케 케르소네소스이다. 팍튀에에서 카르디아까지, 한쪽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반도의 목을 가로질러 걸으면 40스타디온이다. 중간에는 아고라라는 도시가 있다. 반도에서 가장 긴 카르디아와 엘라이우스 사이의 길이는 400스타디온이다.

케르소네소스 다음에는 트라케의 다음 요새들이 있다. 먼저 레우케 악테, 테이리스타시스, 헤라클레이아, 가노스, 가니아이, 네온테이코스, 페린토스시와 항구, 다미논 테이코스, 셀륌브리아시와 항구이다. 이곳에서 폰토스 입구까지는 500스타디온이다. 보스포로스를 거슬러 히에론에 이를 때까지의 구간을 아나플루스라고 부른다. 히에론에서 폰토스 입구의 너비는 7스타디온이다.

폰토스의 트라케 쪽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아폴로니아, 메셈브리아, 오데소폴리스, 칼라티스, 그리고 이스트로스강이다.

트라케 연안을 따라 스트뤼몬강에서 세스토스까지는 이틀 밤낮, 세스토스에서 폰토스 입구까지는 이틀 밤낮, 그 입구에서 이스트로스강까지는 사흘 밤낮이 걸린다. 트라케의 스트뤼몬강에서 이스트로스강까지 연안을 도는 전체 항해 시간은 여드레 밤낮이다. [앞의 개별 수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으나 원문대로 옮겼다.]

68. 스퀴티아와 타우로이인

트라케 다음에는 스퀴타이 민족이 산다. 그 땅에는 튀리스강과 그리스 도시 니코니온, 오피우사가 있다.

스퀴티아에 인접하여 타우로이 민족이 대륙의 돌출부에 산다. 이 돌출부는 바다로 뻗어 있다. 타우리케에는 그리스인들도 살며, [그들의 도시와 지점들은] 다음과 같다. 케르소네소스 교역소, 타우리케의 곶 크리우 메토폰이다. 그다음에는 다시 스퀴타이인들이 살며, 그곳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테우도시아, 퀴타이아, 뉨파이아, 판티카파이온, 뮈르메키온이다.

이스트로스에서 크리우 메토폰까지 곧장 항해하면 사흘 밤낮이 걸린다. 육지를 따라 항해하면 그 두 배가 걸린다. 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만에는 아킬레우스에게 바쳐진 레우케라는 무인도가 있다.

크리우 메토폰에서 판티카파이온까지는 하루 밤낮 항해 거리이다. 판티카파이온에서 마이오티스호 입구까지는 20스타디온이다. 마이오티스호는 폰토스의 절반 크기라고 한다.

마이오티스호에 들어가면 곧 왼쪽에 스퀴타이인들이 있다. 이들은 타우리케 너머 바깥 바다에서부터 마이오티스호까지 이어져 살기 때문이다.

쉬르마타이인. 스퀴타이인들 다음에는 쉬르마타이 민족과 타나이스강이 있다. 이 강이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한다.

69. 유럽 전체의 연안 항해

유럽 쪽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부터 육지를 따라 만들을 돌아 항해하되, 기록한 밤의 수를 같은 수의 낮으로 계산하고, 스타디온으로 적힌 곳은 500스타디온을 하루 항해 거리로 계산하면, 유럽의 연안 항해는 153일이 된다. 이 계산에서는 마이오티스호를 폰토스의 절반과 같은 크기로 본다.

유럽에서 가장 큰 강들은 타나이스, 이스트로스, 로다노스이다.

아시아

70. 사우로마타이인

타나이스강에서 아시아가 시작된다. 폰토스에 있는 아시아의 첫 민족은 사우로마타이인이다. 사우로마타이 민족은 여성의 지배를 받는다.

71. 마이오타이인

여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다음에는 마이오타이인이 산다.

72. 신도이인

마이오타이인들 다음에는 신도이 민족이 산다. 이들의 땅은 호수 바깥쪽까지도 이어진다. 그들에게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파나고로스시, 케포이, 신디코스항, 파투스이다.

73. 케르케타이인

신디코스항 다음에는 케르케타이 민족이 산다.

74. 토레타이인

케르케타이인들 다음에는 토레타이 민족이 살며, 그리스 도시 토리코스와 항구가 있다.

75. 아카이아인

토레타이인들 다음에는 아카이아 민족이 산다.

76. 헤니오코이인

아카이아인들 다음에는 헤니오코이 민족이 산다.

77. 코락소이인

헤니오코이인들 다음에는 코락소이 민족이 산다.

78. 콜리케

코락소이인들 다음에는 콜리케 민족이 산다.

79. 멜랑클라이노이인

콜리케 다음에는 멜랑클라이노이 민족이 살며, 그 땅에는 메타소리스강과 아이기피오스강이 있다.

80. 겔로네스인

멜랑클라이노이인들 다음에는 겔로네스인이 산다.

81. 콜코이인

이들 다음에는 콜코이 민족이 산다. 디오스쿠리스시, 그리스 도시 귀에노스와 귀에노스강, 케로비오스강, 코르소스강, 아리오스강, 파시스강과 그리스 도시 파시스가 있다. 강을 180스타디온 거슬러 올라가면 메데이아의 고향인 큰 비그리스인 도시['말레'라는 독법도 있는 불명확한 구절]에 이른다. 이곳에는 리스강, 이시스강, 레이스톤강, 압사로스강이 있다.

82. 뷔제레스인

콜코이인들 다음에는 뷔제레스 민족과 다라아논강, 아리온강이 있다.

83. 에케케이리에이스인

뷔제레스인들 다음에는 에케케이리에이스 민족이 살며, 포르다니스강, 아라비스강, 림네시, 그리스 도시 오데이니오스가 있다.

84. 베케이리케

에케케이리에이스인들 다음에는 베케이로이 민족이 살며, 베케이리코스항과 그리스 도시 베케이리아스가 있다.

85. 마크로케팔로이인

베케이로이인들 다음에는 마크로케팔로이 민족이 살며, 프소론항과 그리스 도시 트라페주스가 있다.

86. 모쉬노이코이인

마크로케팔로이인들 다음에는 모쉬노이코이 민족이 살며, 제퓌리오스항, 그리스 도시 코이라데스, 아레스섬이 있다. 이들은 산지에 산다.

87. 티바레노이인

모쉬노이인들 다음에는 티바레노이 민족이 산다.

88. 칼뤼베스인

티바레노이인들 다음에는 칼뤼베스 민족이 살며, 게네테스 폐쇄항, 그리스 도시 스타메네이아, 그리스인의 성채 이아소니아가 있다.

89. 앗쉬리아

칼뤼베스인들 다음에는 앗쉬리아 민족이 산다. 테르모돈강과 그리스 도시 테미스퀴라, 뤼카스토스강과 그리스 도시, 할뤼스강과 그리스 도시 카루사, 그리스 도시 시노페, 그리스 도시 케라수스와 오케라이노스강, 그리스 도시 하르메네와 항구, 그리스 도시 테트라키스가 있다.

90. 파플라고니아

앗쉬리아 다음에는 파플라고니아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스테파네항, 그리스 도시 콜루사, 키놀리스, 카람비스, 퀴토리스, 세사모스와 파르테니오스강, 그리스 도시 티에이온과 항구, 프쉴라와 칼리코로스강이 있다.

91. 마리안뒤노이인

파플라고니아 다음에는 마리안뒤노이 민족이 산다. 이곳에는 그리스 도시 헤라클레이아와 뤼코스강, 그리고 휘피오스라는 또 다른 강이 있다.

92. 비튀노이인

마리안뒤노이인들 다음에는 트라케의 비튀노이 민족이 산다. 사가리오스강, 아르타네스라는 또 다른 강, 튀니아스섬, 레바스강이 있다. 튀니아스에는 헤라클레이아인들이 산다.

곧이어 해협과 앞서 말한 폰토스 입구의 신역이 있다. 그다음에는 칼케돈시가 있다. [트라케의 바깥쪽이라는 문구에 결락.] 그다음에는 올비아노스만이 있다. 마리안뒤노이인들의 땅에서 올비아노스만 가장 안쪽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사흘이 걸린다. 이것이 비튀노이인들의 트라케가 뻗어 있는 범위이다.

폰토스 입구에서 마이오티스호 입구까지 항해하는 거리는 유럽 쪽 연안을 따르든 아시아 쪽 연안을 따르든 비슷하다.

93. 뮈시아

트라케 다음에는 뮈시아 민족이 산다. 올비아노스만에서 나가 키아노스만의 키오스까지 갈 때 왼쪽에 있는 곳이 뮈시아이다. 뮈시아는 반도이다.

그곳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올비아와 항구, 칼리폴리스와 항구, 키아노스만의 곶, 그리고 왼쪽의 키오스시와 키오스강이다. 뮈시아의 연안을 따라 키오스까지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94. 프뤼기아

뮈시아 다음에는 프뤼기아 민족이 산다. 다음 그리스 도시들과 지점들이 있다. 뮈를레이아, 뤼다코스강과 그 앞의 베스비코스섬, 플라키아시, 그리고 지협에 자리 잡고 지협을 가로막고 있는 퀴지코스이다. 지협 안쪽에는 아르타케가 있다.

그 맞은편에는 프로콘네소스섬과 도시가 있으며, 좋은 항구를 가진 또 다른 섬 엘라폰네소스가 있다. 프로콘네소스인들이 이 섬을 경작한다. 대륙에는 프리아포스, 파리온, 람프사코스, 페르코테, 아뷔도스가 있다. 이곳이 세스토스 맞은편의 프로폰티스 입구이다.

95. 트로아스

여기서 트로아스가 시작된다. 그곳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다르다노스, 로이테이온, 일리온이다. 일리온은 바다에서 25스타디온 떨어져 있으며, 그 지역에는 스카만드로스강이 있다.

그 맞은편에는 테네도스섬과 항구가 있다. 천문학자 클레오스트라토스가 이곳 출신이다. 대륙에는 시게, 아킬레이온, 아카이아인들의 크라테레스['큰 그릇들'], 콜로나이, 라리사, 하마크시토스, 그리고 크뤼세스가 사제로 봉사했던 아폴론의 신역이 있다.

96. 아이올리스

여기서부터 이 지역을 아이올리스라고 부른다. 그 안에는 해안의 다음 아이올리스 도시들이 있다. [결락] 케브렌, 스켑시스, 네안드레이아, 피튀에이아이다. 뮈시아에서 안탄드로스까지 프뤼기아 연안의 항해 거리는 [결락].

97. 레스보스

그 맞은편에는 아이올리스의 섬 레스보스가 있다. 이 섬에는 다음 다섯 도시가 있다. 메튐나, 안티사, 에레소스, 퓌라와 항구, 그리고 항구가 두 개 있는 뮈틸레네이다. 그 맞은편에는 포르도셀레네라는 섬과 도시가 있다.

이제 섬들 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98. 뤼디아

안탄드로스와 아이올리스 아래쪽에서 테우트라니아까지의 땅은 예전에는 그 자체로 뮈시아였으나, 지금은 뤼디아이다. 뮈시아인들은 더 위쪽 내륙으로 옮겨 갔다.

그 지역과 뤼디아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이 있다. [아르테미스의] 신역이 있는 아스튀라와 아드라뮛티온이다. 이 땅은 레스보스인들의 땅이다. 그 위쪽에는 키오스인들의 영토와 아타르네우스시가 있다. 그 아래 바닷가에는 피타네항과 카이코스강이 있다.

피타네 다음에는 엘라이아, 그뤼네이온, 아카이아인들의 항구가 있다. 아카이아인들이 텔레포스를 공격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이곳에서 의논했다고 한다. 이어 뮈리나시와 항구, 퀴메와 항구가 있다. 퀴메 위쪽 내륙에는 그리스 도시 아이가이가 있다. 또 레우카이와 항구들, 호메로스가 있었던 스뮈르나, 포카이아와 항구, 헤르모스강, 클라조메나이와 항구, 에뤼트라이와 항구가 있다.

그 맞은편에는 키오스섬과 항구가 있다.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게라이시와 항구, 테오스시와 항구, 레베도스, 내륙의 콜로폰, 노티온과 항구, 클라리오스 아폴론의 신역, 카위스트로스강, 에페소스와 항구, 마라테시온, 대륙 안쪽의 그리스 도시 마그네시아, 아나이아, 파니오니온, 에라시스트라티오스, 카라드루스, 포카이아, 아카다미스, 뮈칼레가 있다. 이곳들은 사모스인들의 영토에 있다.

뮈칼레 앞바다에는 사모스섬이 있고, 도시와 폐쇄항이 있다. 이 섬은 키오스보다 작지 않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뮈칼레에는 프리에네시가 있다. 항구가 두 개 있고, 그중 하나는 폐쇄항이다. 그다음에는 마이안드로스강이 있다. 아스튀라에서 마이안드로스강까지 뮈시아와 뤼디아의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낮 이틀과 하룻밤이 걸린다.

99. 카리아

뤼디아 다음에는 카리아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다음 그리스 도시들과 지점들이 있다. 헤라클레이아, 이어 밀레토스, 이어 뮌도스와 항구, 할리카르낫소스와 폐쇄항 및 섬 둘레의 또 다른 항구와 강, 칼륌나섬, 카뤼안다섬과 도시와 항구가 있다. 이곳 사람들은 카리아인이다. 또 코스섬과 도시와 폐쇄항이 있다.

그 맞은편에는 카리아의 케라미아코스만과 섬과 항구가 있다.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신성한 트리오피온곶, 그리스 도시 크니도스, 로도스인들의 대륙 영토, 카리아 도시 카우노스와 폐쇄항, 크뤼아소스곶이 있다.

그 맞은편에는 로도스섬과 도시가 있다. 이 섬에는 예전부터 있던 세 도시, 곧 이알뤼소스·린도스·카메이로스가 있다. 로도스 부근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사는 섬들이 있다. 칼케이아, 텔로스, 카소스, 카르파토스이다. 카르파토스에는 도시가 세 개 있다.

마이안드로스강에서 카리아의 곶인 크뤼아소스까지 카리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이틀이 걸린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100. 뤼키아

카리아 다음에는 뤼키아 민족이 산다. 뤼키아인들에게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텔미소스와 항구, 크산토스강이 있다. 이 강을 거슬러 [크산토스시]에 갈 수 있다. 파타라시에도 항구가 있다. 펠로스시와 항구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로도스인들의 섬 메기스테가 있다. 리뮈라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도달한다.

그다음에는 가가이아시, 이어 켈리도니아이, 곶과 시데루스항이 있다. 그 위쪽 산에는 헤파이스토스의 신역이 있으며, 땅에서 저절로 큰 불이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는다.

바다에서 더 위쪽으로 나아가면 파셀리스시와 항구가 있다. 이곳은 만을 이룬다. 또 이뒤로스시, 뤼르나테이아섬, 올비아, 마귀토스와 카타락테스강, 페르게시와 아르테미스의 신역이 있다.

뤼키아의 연안을 곧장 항해하면 [출발 지점 결락] 하루 밤낮이 걸린다. 육지를 따라가면 그 두 배가 걸린다. 만이 많기 때문이다.

101. 팜퓔리아

뤼키아 다음에는 팜퓔리아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아스펜도스시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강은 에우뤼메돈이다. 이어 쉴레이온시, 그리고 퀴메인들의 식민시 시데와 항구가 있다. 페그네[페르게로 읽기도 한다]에서 팜퓔리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팜퓔리아에는 다른 도시들도 있다. 키뷔라, 이어 코라케시온이다.

102. 킬리키아

팜퓔리아 다음에는 킬리키아 민족이 산다. 그곳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셀리누스, 카라드루스시와 항구, 아네무리온곶과 도시, 섬도 가지고 있는 나기도스시이다.

세토스항 쪽에는 포세이데이온, 살론, 뮈우스, 켈렌데리스시, 아프로디시오스항과 또 다른 항구, [거리에 관한 결락] 떨어져 있는 그리스 도시 홀모이, 버려진 도시 사르페돈과 강, 그리스 도시 솔로이, 제퓌리온시, 퓌라모스강과 말로스시가 있다. 말로스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도달한다. 또 아다네 교역소, 페니키아인들의 항구 뮈리안도스, 탑사코스강이 있다.

팜퓔리아의 경계에서 탑사코스강까지 킬리키아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낮 사흘과 밤 이틀이 걸린다.

폰토스의 시노페에서 대륙과 킬리키아를 통과하여 솔로스까지, 한쪽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가는 육로는 닷새 길이다.

103. 퀴프로스

킬리키아 맞은편에는 퀴프로스섬이 있다. 그 안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겨울을 날 수 있는 폐쇄항이 있는 그리스 도시 살라미스, 카르파세이아, 케뤼네이아, 페니키아인들의 레페티스, 겨울을 날 수 있는 항구가 있는 솔로이, 그리스 도시 마리온, 그리고 토착민들의 아마투스이다. 이 도시들에는 모두 인적이 없는 항구들이 있다[원문 표현]. 내륙에는 다른 비그리스 도시들도 있다.

이제 방향을 돌렸던 곳으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104. 쉬리아와 페니키아

킬리키아 다음에는 쉬리아 민족이 산다. 쉬리아의 해안에는 페니키아 민족이 산다. 바다에서 40스타디온도 안 되는 좁은 지대이며, 어떤 곳은 너비가 10스타디온에도 못 미친다.

탑사코스강 다음에는 페니키아인들의 트리폴리스, 아라도스섬과 항구가 있다. 튀로스의 왕실 거처이며[전승된 본문의 연결이 불확실하다], 육지에서 약 8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반도에는 또 다른 도시 트리폴리스가 있다. 이곳은 아라도스·튀로스·시돈 사람들의 도시이다. 같은 장소에 세 도시가 있으며, 각각 따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신의 얼굴'이라는 산, 트리에레스[시]와 항구, 베뤼토스시와 항구, 보리노스, 포르퓌레온시, 시돈시와 폐쇄항, 시돈인들의 오르니톤시가 있다. [레온톤시에서 오르니톤시까지는 결락.] 튀로스인들의 사라프타시, 또 다른 도시 튀로스가 있으며, 성벽 안에 항구가 있다. 이 섬은 튀로스인들의 왕실 거처이며, 육지에서 3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이하 쉬리아·아라비아·이집트 부분은 필사본 훼손이 심하다. 대괄호는 옛 판본의 보충을 옮긴 것이다.]

팔라이튀로스시와 그 가운데를 흐르는 강, [엑딥포이]의 도시와 강, 아케시가 있다. 바깥쪽에는 튀[로스인들의] 도시 [결락]. [카르멜로스]산은 제우스에게 바쳐진 성스러운 곳이다. 시돈인들의 아라도스시 [결락], 튀로스인들의 강, 시돈인들의 도로스시가 있다. [이오페시. 이곳에서] 안드로메다를 [바다 괴물에게 내주었다고] 한다. 튀로스인들의 [아스칼]론시와 왕실 거처가 있다. 이곳에 [코일레] 쉬리아의 [경계가 있다]. 코일레 쉬리아의 연안은 [탑사코스강에서] 아스칼론까지 2,700스타디온이다.

105. 아라비아

[쉬리아 다음에는 아랍] 민족이 산다. 말을 타는 유목민이며, [온갖 가축의 무리를 기른다. 양과 염소] [결락]와 낙타이다. 이 지역은 [결락]. 대부분은 [결락], 이집트를 [결락], 그 안에 [결락], 그곳에서 [결락], 바깥쪽 바다 [결락], 바다를 [결락], 그리고 [결락]. 연안 항해는 [결락].

아라비아 자체의 해안은 쉬리아의 경계에서 펠루시온의 [나일강] 하구까지 1,300스타디온이다. 이곳이 아라비아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결락] 아라비아를,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거기서 아라[결락] 이집트인들. 조공을 바친다, 이집[결락] 언제나 아랍인들에게. [문장 관계를 복원할 수 없는 단편들이다.]

106. 이집트

[아라비아 다음에는 이집트] 민족이 있다. 그 안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펠루시온시와 항구]와 왕궁이다. 이곳의 [나일강 펠루시온 하구가] 첫 번째 하구이며 아라비아의 [경계이다. 두 번째는 타니코스이며, 그곳에 왕실의 도시가 있다]. 세 번째는 [멘데시온과 도시, 네 번째는 파트니티]코스, 다섯 번째는 세벤뉘[티코스와 세벤뉘토스시이다. 부토스호에는] 도시와 왕[궁이 있다. 여섯 번째는 볼비티코스와 왕실의 도시이다]. 일곱 번째는 [카노비코스와 토니스시이다. 그다음에는] 마레이아라는 이름의 [호수가 있으며, 이 호수는 이미] 리비아에 있다.

[긴 결락. 문장으로 옮길 수 없는 글자 조각들이 남아 있다.]

[…] 펠루시온 지류이다. 그리고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세벤뉘티코스 지류는 한쪽이 멘데시온으로, 다른 한쪽이 바다로 흐른다. 멘데시온에서 파트니티코스 하구로, 펠루시온 지류에서 타니코스 하구로 이어진다. 카노비코스에서 세벤뉘티케호까지 이어지는 지류가 있으며, 볼비티코스 하구는 호수에서 흘러나온다.

이집트의 해안 지역은 대부분 호수와 습지이다. 이집트의 모양은 도끼와 비슷하다. 바닷가에서는 넓고, 내륙으로 가면서 좁아지며, 멤피스 부근이 가장 좁다. 그다음 멤피스에서 더 내륙으로 가면 다시 넓어지고, 가장 위쪽이 가장 넓다. 이집트에서 멤피스 위쪽 부분은 해안 부분보다 더 크다.

카노비코스 하구가 아시아와 리비아를 구분한다. 펠루시온 하구에서 시작하는 이집트의 해안 길이는 1,300스타디온이다. 아시아는 해안이 굽어 있으므로 이를 돌아 항해하는 시간을 유럽에 관해 적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87일이다.

카노비코스 하구에는 카노포스라는 무인도가 있다. 그 안에는 트로이에서 돌아온 메넬라오스의 조타수 카노포스의 무덤이라는 표지가 있다. 이집트인들과 이 지역의 이웃 사람들은 펠루시온이 카시온까지 이르고, 카노포스는 그 조타수의 무덤이 있는 섬까지 이른다고 말한다.

리비아

107. 아뒤르마키다이인

리비아는 나일강의 카노비코스 하구에서 시작된다. 아뒤르마키다이는 리비아의 한 민족이다.

토니스에서 무인도 파로스까지의 항해 거리는 150스타디온이다. [좋은 항구가 있으나 물은 없다.] 파로스에는 항구가 많이 있다. 사람들은 마레이아호에서 물을 길어다 쓴다. 그 물은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파로스에서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 항로는 짧다.

케르소네소스와 항구도 있다. 연안 항해 거리는 200스타디온이다. 케르소네소스 다음에는 플린티노스만이 있다.

플린티노스만의 입구를 지나 레우케 악테까지 항해하는 데는 하루 밤낮이 걸린다. 플린티노스만의 가장 안쪽까지 돌아가는 데는 그 두 배가 걸린다. 만 둘레에는 사람들이 산다. 레우케 악테에서 라오다만테이온항까지는 반나절 항해 거리이다. 라오다만테이온항에서 파라이토니온항까지도 반나절 항해 거리이다. 그다음에는 아피스시가 있다. 이집트인들의 지배는 여기까지 미친다.

108. 마르마리다이인

아피스에서 헤스페리데스까지는 리비아의 마르마리다이 민족이 산다. 아피스에서 튄다리오이 암초까지는 하루 항해 거리이다. 튄다리오이 암초에서 플뤼노이항까지도 하루 항해 거리이다. 플뤼노이에서 대 페트라스까지는 반나절, 페트라스에서 메넬라오스까지는 하루, 메넬라오스에서 퀴르타네이온까지는 반나절 항해 거리이다.

퀴르타네이온 다음에는 안티퓌고스항이 있으며, 반나절 항해 거리이다. 안티퓌고스 다음에는 소 페트라스항이 있으며, 반나절 항해 거리이다. 소 페트라스에서 아킬리데스 케르소네소이와 항구까지는 하루 항해 거리이다. 이곳은 퀴레네인들의 영토이다.

페트라스와 케르소네소스 사이에는 아에도니아섬과 플라테이아이섬이 있으며, 그 섬들 그늘에는 정박지가 있다. 이곳에서부터 실피온이 자라기 시작한다. [경작지에 관한 문구 불명확.] 실피온이 나는 지대는 케르소네소스에서 내륙을 지나 헤스페리데스까지, 육지를 따라 대략 1,500스타디온에 걸쳐 이어진다.

아프로디시아스섬에는 정박지가 있고, 나우스타트모스항이 있다. 케르소네소스에서 하루 항해 거리이다. 나우스타트모스에서 퀴레네의 항구까지는 100스타디온이다. 항구에서 퀴레네까지는 80스타디온이다. 퀴레네는 내륙에 있다.

이 항구들은 사방에서 정박할 수 있는 곳들이다. 그 사이 지역에도 작은 섬들 아래의 피항처와 정박지, 해안 지점이 많이 있다. 퀴레네의 항구에서 바르케 앞의 항구까지는 500스타디온이다. 바르케인들의 도시는 바다에서 10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바르케 앞의 항구에서 헤스페리데스까지는 620스타디온이다.

퀴레네에서 헤스페리데스까지는 항구와 해안이 갈라진 지점들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퓌쿠스만이 있다. 그 위쪽에는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이 있다.

그곳은 깊이가 18오르귀아[양팔을 벌린 길이의 단위]인 움푹 팬 땅이다. 둘레가 온통 절벽이어서 내려가는 길이 전혀 없다. 길이와 너비는 어느 쪽이나 적어도 2스타디온이다. 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더할 수 없이 빽빽하게 자라므로 온통 그늘져 있다. 나무들은 로토스, 온갖 종류의 사과나무, 석류나무, 배나무, 미마이퀼라[딸기나무류], 뽕나무, 포도나무, 도금양, 월계수, 담쟁이덩굴,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아몬드나무, 호두나무이다.

아직 말하지 않은 지점들로는 정원 부근의 암펠로스, 아피오스, [30스타디온의 간격에 관한 문구 불명확], 케르소네소스와 매우 많은 정원들, 제네르티스, 타우케이라, 카우칼로스 마을, 헤스페리데스시와 항구, 그리고 도시 옆의 엑케이오스강이 있다.

안티데스 케르소네소이에서 헤스페리데스까지 이 지역들은 일부는 퀴레네인들의 것이고, 일부는 바르케인들의 것이다.

109. 나사모네스인과 마카이인

헤스페리데스 다음에는 쉬르티스라는 큰 만이 있다. 가능한 한 가깝게 어림잡으면 5,000스타디온이다. 헤스페리데스에서 맞은편 네아폴리스까지 만을 가로지르는 너비는 사흘 밤낮 항해 거리이다.

그 둘레에는 리비아의 나사모네스 민족이 왼쪽의 가장 안쪽까지 산다. 그들 다음에는 리비아의 마카이 민족이 쉬르티스 연안을 따라 만의 입구까지 산다.

헤스페리데스에서 쉬르티스로 들어가면 헤라클레스의 모래언덕들이 있다. 그다음에는 드레파논, 세 개의 폰티아이섬, 이어 레우카이라고 불리는 섬들이 있다. 쉬르티스의 가장 움푹한 곳, 곧 만의 가장 안쪽에는 필라이노스의 제단들, 선착장, 쉬르티스의 암몬의 [소금에 관한 문구가 섞인] 성스러운 숲이 있다.

이곳에서부터 쉬르티스 연안에 사는 마카이인들은 겨울에는 바닷가에서 가축들을 우리에 넣어 기른다. 여름에는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축을 몰고 함께 위쪽 내륙으로 떠난다.

쉬르티스 다음 [쉬르티스 바깥]에는 아름다운 땅과 키뉩스라는 도시가 있다. 도시는 버려져 있다. 네아폴리스에서 쉬르티스 안쪽 방향으로 8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그 아래에는 키뉩스강이 있으며, 강 앞바다에는 섬이 있다.

헤스페리데스에서 만 가장 안쪽의 필라이노스 제단들까지 쉬르티스의 안쪽 깊이를 항해하는 데는 사흘 밤낮이 걸린다. 키뉩스강에서 레우카이섬들까지 그 너비를 가로지르는 데는 나흘 밤낮이 걸린다.

110. 로토파고이인

쉬르티스 바깥에는 리비아의 로토파고이['로토스를 먹는 사람들'] 민족이 다른 쉬르티스의 입구까지 해안을 따라 산다. 이들은 로토스를 식량과 음료로 이용한다.

카르타고인의 영토에 있는 네아폴리스 다음에는 그라파라시가 있다. 네아폴리스에서 그라파라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그라파라 다음에는 아브로토논시와 항구가 있다. 그곳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아브로토논 다음에는 타리케이아이시와 항구가 있다. 아브로토논에서 그곳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이 부근, 로토파고이인들 다음의 타리케이아이 맞은편에는 브라케이온이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은 길이 300스타디온이며, 너비는 그보다 조금 작다. 대륙에서 약 3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이 섬에서는 먹는 로토스와 술을 만드는 다른 종류의 로토스가 난다. 로토스 열매의 크기는 미마이큘론[딸기나무 열매] 정도이다. 야생 올리브로 기름도 많이 만든다. 섬에서는 밀과 보리를 비롯한 많은 수확물이 난다. 땅이 비옥하다.

타리케이아이에서 섬까지는 하루 항해 거리이다. 섬 다음에는 에피코스시가 있다. 섬에서 에피코스까지는 반나절 항해 거리이다. 에스키오돈[앞 지명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다]에서 [마코마다 또는 네아폴리스까지]는 하루 항해 거리이며, 그 앞바다에는 무인도가 있다.

그다음에는 케르키니티스섬과 도시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탑소스가 있다. 그곳에서 탑소스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 반이 걸린다. 탑소스에서 [결락] 및 소 [렙티스]와 아드뤼메토스 안쪽에는 큰 만이 있다. 그 안에는 케르키니티스라고 불리는 소 쉬르티스가 있다. 다른 쉬르티스보다 훨씬 험하고 항해하기 어려우며, 둘레는 2,000스타디온이다.

이 쉬르티스 안에는 트리토니스라고 불리는 섬과 트리톤강이 있고, 그곳에는 아테나 트리토니스의 신역이 있다. 호수에는 작은 입구가 있고, 그 입구에는 섬이 있다. 썰물 때면 때로 호수로 들어가는 뱃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호수는 커서 둘레가 약 1,000스타디온이다.

그 둘레에는 모두 리비아인들 [민족명 또는 문구 결락]이 살며, 그 너머 서쪽에는 도시가 있다. 이 리비아인들은 모두 금발이며 [본문 불명확],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이 땅은 대단히 좋고 온갖 것을 풍부하게 산출한다. 그들의 가축은 매우 크고 수가 많으며, 그들 자신도 매우 부유하고 [아름답다].

이 쉬르티스 다음에는 네아폴리스가 있다. 아드뤼메토스에서 네아폴리스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네아폴리스 다음에는 헤르마이아곶과 도시가 있다. 네아폴리스에서 헤르마이아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 반이 걸린다.

네아폴리스에서 카르타고 쪽의 다른 바다를 향하여 지협까지 걸으면 180스타디온이다. 이곳은 반도이며 그곳을 지협이 가로지른다. 이곳 강에서 카르타고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카르타고인들의 땅은 만 안에 있다.

111. 카르타고

지협 다음에는 페니키아인들의 도시 카르타고와 항구가 있다. 헤르마이아에서 카르타고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

헤르마이아곶 앞에는 작은 섬들, 곧 폰티아섬과 코쉬로스가 있다. 헤르마이아에서 코쉬로스까지는 하루 항해 거리이다. 헤르마이아곶에서 동쪽으로 [헤르마이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카르타고인들이 사는 작은 섬 세 개가 있다. 멜리테시와 항구, 가울로스시, 람파스이다. 람파스에는 탑이 두세 개 있다. 코쉬로스에서 시칠리아의 릴뤼바이온곶까지는 하루 항해 거리이다.

카르타고 다음에는 이튀케시와 항구가 있다. 카르타고에서 이튀케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이튀케 다음에는 힙푸 아크라, [또는] 힙폰시가 있다. 그 옆에는 호수가 있으며, 호수 안에는 섬들이 있다. 호수 둘레[섬들에 있다는 문구도 전한다]에는 다음 도시들이 있다.

프세가스시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낙시카이섬들이 많이 있다. 피테쿠사이와 항구가 있으며, 그 맞은편에도 섬이 있고 섬 안에는 에우보이아시가 있다. 탑사와 도시와 항구, 카우카시스시와 항구, 시다시, 이울리우 아크라와 도시와 항구, 헤브도모스시와 항구, 악시온섬과 그 위의 도시와 항구, 프사마토스섬과 도시와 항구, 그리고 만이 있다.

만 안에는 바르타스섬과 항구, 강가의 칼카스시, 아륄론시, 메스시와 항구, 강가의 시게시가 있다. 강 앞에는 아크라섬과 큰 도시와 항구, 아크로스시와 그곳의 만, 드리나우파라는 무인도, 리비아 쪽 헤라클레스의 기둥, 아빌뤼케곶과 강가의 도시가 있다. 그 맞은편에는 가데이라섬들이 있다.

카르타고에서 이쪽 해안을 따라 헤라클레스의 기둥까지 가장 좋은 항해 조건에서 항해하면 이레 밤낮이 걸린다.

가데이라. 이 섬들은 유럽 쪽에 있다. 그중 하나에는 도시가 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이 섬들과 마주한 쪽에 있다. 리비아 쪽 기둥은 낮고 유럽 쪽 기둥은 높다. 두 기둥은 서로 마주 보는 곶들이며, 서로 하루 항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집트의 카노비코스 하구에서 헤라클레스의 기둥까지, 아시아와 유럽에 관하여 적은 것과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여 만들을 돌아 리비아 연안을 항해하면 74일이 걸린다.

리비아에 관하여 기록한 도시들과 교역소들 가운데, 헤스페리데스 부근의 쉬르티스에서 리비아 쪽 헤라클레스의 기둥까지 있는 것은 모두 카르타고인들의 것이다.

112. 헤라클레스의 기둥 바깥과 케르네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지나 바깥으로 항해하면서 리비아를 왼쪽에 두면, 헤르마이아곶까지 큰 만이 있다. 이곳에도 헤르마이아라는 곶이 있기 때문이다.

만의 한가운데에는 폰티온이라는 지점과 도시가 있다. 도시 둘레에는 큰 호수가 있고, 호수 안에는 섬이 많이 있다. 호수 둘레에는 갈대, 퀴페이로스[방동사니류], 플레오스[습지 식물], 트뤼온[골풀류]이 자란다. 멜레아그리데스라는 새들은 이곳에 있으며, 이곳에서 옮겨 간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곳에는 전혀 없다. 이 호수의 이름은 케페시아스이고 만의 이름은 코테스이다. 헤라클레스의 기둥과 헤르마이아곶 사이에 있다.

헤르마이아곶에서부터는 커다란 암초 지대가 리비아에서 유럽 쪽으로 뻗어 있다. 바다 위로 솟아 있지는 않으며, 어떤 곳에서는 물결이 그 위를 덮친다. 암초 지대는 맞은편 유럽의 다른 곶까지 뻗어 있다. 그 곶의 이름은 '신성한 곶'이다.

헤르마이아곶 다음에는 아니데스강이 있다. 이 강은 큰 호수로 흘러든다. 아니데스 다음에는 릭소스라는 또 다른 큰 강과 페니키아인들의 도시 릭소스가 있다. 강 건너편에는 리비아인들의 또 다른 도시와 항구가 있다.

릭소스 다음에는 크라비스강과 항구, 튀미아테리아라는 페니키아인들의 도시가 있다. 튀미아테리아에서 [결락] 바다로 가장 멀리 돌출한 솔로에이스곶에 이른다. 리비아의 이 지역 전체는 매우 이름나고 매우 신성하다.

곶 끝에는 포세이돈의 큰 제단이 있다. [제단의 성격에 관한 본문 불명확.] 제단에는 사람의 형상, 사자, 돌고래가 새겨져 있다.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솔로에이스곶 다음에는 크시온이라는 강이 있다. 이 강 둘레에는 신성한 에티오피아인들이 산다. 그 부근에는 케르네라는 섬이 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 헤르마이아곶까지 연안을 항해하는 데는 이틀이 걸린다. 헤르마이아곶에서 솔로에이스곶까지는 사흘이 걸린다. 솔로에이스에서 케르네까지는 이레가 걸린다. 따라서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 케르네섬까지 전체 연안 항해는 열이틀이다.

케르네섬 너머는 바다가 얕고 진흙과 해초가 있어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 해초의 너비는 한 뼘 정도이며, 윗부분이 날카로워 찌른다.

상인들은 페니키아인이다. 케르네섬에 도착하면 둥근 상선을 정박시키고 케르네에 자신들이 머물 천막을 친다. 화물을 내린 뒤에는 작은 배에 실어 직접 대륙으로 운반한다. 대륙에는 에티오피아인들이 살며, 이들이 상인들과 거래하는 에티오피아인들이다. 상인들은 상품을 팔고 사슴·사자·표범의 가죽, 코끼리 가죽과 상아, 가축의 가죽을 받는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장식으로 [결락] 문신을 사용하고, 상아로 만든 잔과 얕은 술그릇을 사용한다. 그들의 여자들은 상아 팔찌로 몸을 꾸민다. 말에도 상아 장식을 사용한다.

이 에티오피아인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 키가 가장 크다. 키가 4페퀴스[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단위로 한 큐빗]를 넘으며, 일부는 5페퀴스에 이른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그들 가운데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왕이 된다.

그들은 말을 타거나 몰며, 투창과 활을 쓴다.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화살을 사용한다. 페니키아 상인들은 그들에게 향유, 이집트산 돌, 그 밖의 채굴한 돌[이 물품명은 전승된 글자가 불명확하며 교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앗티카 도기와 코우스[술주전자]를 들여온다. 이런 빚어 만든 물건들은 코에스 축제 때 판매되는 것들이다. [물품명의 일부는 전승과 해석에 난점이 있다.]

이 에티오피아인들은 고기를 먹고 젖을 마시며, 포도로 술을 많이 만든다. 페니키아인들은 그 술도 실어 나른다. 그들에게는 큰 도시도 있으며, 페니키아 상인들은 배를 타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티오피아인들의 거주지가 이곳에서 이집트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며, 이 바다도 서로 이어져 있고, 리비아는 반도라고 말한다.

부록

113. 바다를 가로지르는 횡단선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다를 가로질러 대체로 곧게 이어지는 횡단선.

횡단선은 칼키스 부근 에우리포스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게라이스토스까지는 [750]스타디온이다.

게라이스토스에서 안드로스의 파이오니온까지는 80스타디온이다.

안드로스의 [파이오니온]에서 아울론까지는 280스타디온이다.

아울론을 건너 테노스까지는 12스타디온이다.

테노스섬 자체를 따라 레나이아 맞은편 곶까지는 150스타디온이다.

레나이아까지 바다를 건너는 거리는 40스타디온이다.

레나이아 자체를 따라가는 거리와 뮈코노스까지 건너는 거리를 합하면 40스타디온이다.

뮈코노스에서 멜란티오이 암초까지 건너는 데는 오전 항해에 드는 시간보다 조금 덜 걸리며, 거리는 [1]40스타디온이다.

멜란티오이 암초에서 이카로스까지는 오전 동안 항해할 만한 거리이다.

이카로스섬 자체의 길이는 300스타디온이다.

이카로스에서 사모스까지는 오전 동안 항해할 만한 거리이다.

사모스 자체를 따라가는 거리는 200스타디온이다.

사모스에서 뮈칼레까지 건너는 거리는 7스타디온이다[170이라는 교정 제안도 있다].

사모스에서 정오 전에 출항하는 경우, 전체는 2,370스타디온이다. [뮈칼레에서 사모스까지]의 항해는 더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과 문장 연결에 난점이 있는 전승 본문을 옮겼다.]

또 하나의 곧은 횡단선. [일부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113bis로 구별한다.]

[말레아에서] 퀴테라까지는 30스타디온이다[130이라는 교정 제안도 있다].

퀴테라 자체의 길이는 100스타디온이다[200이라는 교정 제안도 있다].

아이길리아까지는 오전 동안 항해할 만한 거리이다.

[아이길리아 자체의 길이는 50스타디온이다. 아이길리아에서 크레타까지는 오전 동안 항해할 만한 거리이다.]

크레타 자체의 길이는 2,500스타디온이다[1,500이라는 교정 제안도 있다].

크레타에서 카르파토스까지는 100스타디온이다[500이라는 교정 제안도 있다].

카르파토스 자체의 길이는 100스타디온이다[300이라는 교정 제안도 있다].

카르파토스에서 로도스까지 항해 거리는 100스타디온이다[300이라는 교정 제안도 있다].

로도스 자체의 길이는 600스타디온이다.

로도스에서 아시아까지는 100스타디온이다.

이 항로를 따라 가로지르는 횡단선의 길이는 4,270스타디온이다.

114. 섬들의 크기

가장 큰 섬은 사르도이다.

두 번째는 시칠리아이다.

세 번째는 크레타이다.

네 번째는 퀴프로스이다.

다섯 번째는 에우보이아이다.

여섯 번째는 퀴르노스이다.

일곱 번째는 레스보스이다.

여덟 번째는 로도스이다.

아홉 번째는 키오스이다.

열 번째는 사모스이다.

열한 번째는 코르퀴라이다.

열두 번째는 카소스이다.

열세 번째는 케팔레니아이다.

열네 번째는 낙소스이다.

열다섯 번째는 코스이다.

열여섯 번째는 자퀸토스이다.

열일곱 번째는 렘노스이다.

열여덟 번째는 아이기나이다.

열아홉 번째는 임브로스이다.

스무 번째는 타소스이다.

[카리안다의 스퀼락스가 쓴, 사람이 사는 세계의 항해기 끝.]

본문 확인에 사용한 자료

- C. Müller 편, *Geographi Graeci Minores*, I, Paris, 1855, 「Scylacis, ut fertur, Periplus」, pp. 15-96. 위 번역의 기본 판본.
- 그리스어 본문 전사 — 그리스어 위키문헌.
- Brady Kiesling의 공개 영문 번역, ToposText, 제112절의 불명확한 교역 물품명 해석 참고. 이 번역본은 출처를 밝힌 비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
- Perseus 서지 — 뮐러판 그리스어 본문.

이 번역은 전승된 고대 지리 서술을 옮긴 것이며, 원문의 지리적 주장·민족 묘사·항해 시간·섬 크기 순위를 현대의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특히 104-106절의 훼손과 113절의 수치상 난점은 본문 안에 표시하였다.